

“4년 묵은 속앓이 풀렸다”... 무료 출장 법률상담 ‘호응’

곡성읍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11개 읍·면 순회 무료 상담

주민들, 사기·채무·통행 분쟁 등 속사정 털어놔 변호사 5명 참여...군, 현장 밀착 상담 확대키로

“어휴 속 시원해요. 4년 동안 어디에 말도 못하고 끔끔대기만 했는데,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3일 오후 2시 곡성군 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상담을 받은 60대 정모씨는 20여 분간의 상담 끝에 ‘후련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씨는 4년 전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채 지인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됐다. 시골에서 경찰서를 찾으면 소문이 금세 퍼질 것 같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했다고 한다.

지난주 곡성읍에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상담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자, 정씨는 “더는 혼자 견딜 수 없었다”며 한걸음에 달려와 서류 봉지를 꺼내 보였다. 병원 한 번 가기도 힘든 마당에 광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건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더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씨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는데, 오늘 상담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며 “군이 아니라 읍·면까지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라 더 고맙다. 홍보가 잘 돼서 더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이날 곡성군 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상담 창구를 열었다.

2013년부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한변호사

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올해부터는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찾는 방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이메일이나 유선 상담 위주로 운영된 탓에 고령층의 접근성이 낮고 홍보도 부족해 이용률은 저조했다. 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 지정된 담당 변호사 10명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이 중 5명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무료 출장 상담이 이뤄지게 됐다. 참가 변호사는 강기원 변호사(법률사무소 기원), 김신원 변호사(김신원 법률사무소), 박연재 변호사(박연재 법률사무소), 오광표 변호사(법무법인 마로), 임현정 변호사(연희로 법률사무소) 등이다.

상담비는 전액 법무부가 부담해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식을 들은 곡성군 지역민들은 채무 문제부터 마을 도로 통행 분쟁, 사기 피해까지 저마다 묵혀뒀던 속사정들을 풀고 상담소에 모여들었다.

70대 정모씨는 2년 전 부산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뒤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고 변호사에게 털어놨다.

그는 “광주나 그나마 가까운 남원 법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마을변호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바로 왔다”며 “전화 상담만으로는 ‘배상명령 신청서’ 같은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웠는데, 오늘은 얼굴을 보고 차분히 물어볼 수 있어 좋았다. 형사 사건으로만

생각했던 사안이 수사와 관할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마을 통행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김모(67)씨도 비슷한 마음이었다. 김 씨는 토지구획의 합이 풀리지 않아 한 달 전부터 이날만 기다려왔다고 한다.

김씨는 “곡성에서 법무사를 찾아다니다가 광주 변호사가 직접 온다길래 꼭 상담받고 싶었다”며 “젊은 사람들은 챗GPT로도 법률 용어를 알아본다지만, 우리는 막막하기만 하다. 오늘 상담으로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이날 상담을 맡은 강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취지에 공감해 5년 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변호사 경력 12년 차인 그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등에서 법률 상담 봉사도 10년째 해 오고 있다.

강 변호사는 “기존 방식으로는 1년에 상담이 1~2건에 그쳤지만, 오늘은 한 자리에서 다섯 분을 만났다”며 “마을 분들이 새로운 걸 알게 됐다고 할 때 뿌듯하다. 시골에서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만큼,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미 곡성군청 기획실 의회법무팀장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왔었고, 상담 후 표정이 밝아진 모습을 보며 필요성을 실감했다”며 “판결문 등 준비 서류를 안내해 보다 질 높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곡성읍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오곡면 사무소 등 군 내 11개 읍·면에서 매달 1회씩(오후 2시~5시)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곡성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



곡성군은 23일 오후 2시께 곡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상담 운영을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이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의대회

5·18단체·시민단체·종교계 등 25일 국회서 촉구

5·18민주화운동 당사자들과 광주시, 광주 지역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서울 국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진위는 결의대회를 통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국가 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별 계획이다.

결의대회에서는 이부영 전 국회의원(자유연립 실천재단 이사장)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또 추진위에 소속된 시민사회·종교계·오월 단체 상임대표들이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향한 의지를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며, ‘남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한다.

추진위는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촉구하고, 온·오프라인 전국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결의대회 이후에도 뜻에 동참하는 ‘국민공동대표’를 상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들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미세먼지 씻는 봄비...5~30mm 내릴 듯

광주·전남 지역에 봄비가 내리며 미세먼지가 씻겨나가고 건조한 대기가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해상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4일 아침(06~09시)부터 25일 새벽(03~06시)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30mm다. 지리산 부근에는 1~3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가 내리면서 구름, 보성, 여수, 광양, 순천 등에 내리던 건조특보가 해제될 수도 있겠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1~4도, 낮 최고기온은 5~9도에 머무르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 10~17도까지 오르겠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 10~18도가 예상된다. 해상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오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갑작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방역당국, ASF 사료업체 감싸나 정보 비공개에 전남 축산농 ‘분통’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경로로 지목한 사료(광주일보 2월23일 6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자 축산 농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ASF 바이러스가 사료에서 발견됐을 뿐 감염 경로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지만 당장 수백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남 일 보듯 하는 전남도 등 방역당국이 야속하기만 하다.’

23일 농림식품축산부와 양돈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한 돼지 열장단백질 제조업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관하는 듯한 모양새다.

정부는 이미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 문서를 게재했지만 익명 처리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농민들 사이에 불만이 적지 않다.

영광 지역 ASF 확진 농장주는 “정작 어떤 사료 제조업체도 해당 원료를 사용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농가로 전달된 사료 관련 공식 문서나 안내가 없어 농가들끼리 알음알음 문제가 발생한 사료 원료 업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남에서 ASF에 확진된 세 개 농가가 돼지에게 먹인 사료의 종류가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축산 농가의 불안감과 혼란은 한층 심각해지는 형편이다.

정부는 해당 업체 사료에서 발견된 ASF 바이러스가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이다. 감염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사료 제조업체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사료 전수조사가 농가들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업체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윤준명 기자 mskim@kwangju.co.kr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도, 참여 기업 3월9일까지 모집 최대 500만~1000만원 지원

전남도가 ‘2026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18~45세 청년 근로자(재직 1~4년차)가 재직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근속 연차에 따라 최장 4년간 차등 지급하는데, 기업은 최대 500만원, 청년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400개 기업, 청년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오는 3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안정적 장기 근속을 지원해 일사 초기 인센티브를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면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